

## 교도 범위 향상과 훈련에 대해①

도타원 민성호 교무(유성교당)

‘교도 범위 향상과 훈련’이라는 글에 대한 토론을 맡고 기대가 컸다. 올해가 범위사정의 해이기 때문에 교당 교무로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훈련을 통해 범위향상을 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글을 읽었다.

이 글에는 범위 향상과 훈련의 관계, 시대에 맞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정착 방안과 범위등급에 맞는 범위사정 기준의 마련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되었다. 또한 교단적으로 시대에 맞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①야 하며, 범위등급에 맞는 범위사정 세부기준을 마련하①야 한다는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 글의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이미 제시된 내용 가운데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세미나에서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 1.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정의와 현실 적용 문제

정기훈련법(定期訓練法)은 정(靜)할 때 곧 일정한 기간, 일정한 훈련 장소에서 정기훈련과목을 통하① 법(法)의 훈련을 받아 삼학수행을 전문적으로 단련하게 하는 공부법. 정기훈련과목은 총 11과목으로 정해져 있①서 이를 정기훈련 11과목이라고도 한다.<sup>36)</sup>

상시훈련법(常時訓練法)은 동(動)할 때 곧 일상생활 속에서 삼학수행을 훈련시키는 법으로 ‘상시응용주의사항(常時應用注意事項)’ 육조(六條)와 ‘교당내왕시주의사항(敎堂來往時注意事項)’ 육조로 구성되① 있다. 상시훈련법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삼학수행을 진행시키는 법으로 정기훈련에서 양성한 삼대력을 활용하며, 그 실제 활용능력을 키우는 공부법이다.<sup>37)</sup>

이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① 재가출가의 공부인 모두가 항상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된다.” 고 하셨으니 이 두 훈련법을 잘 해석하는 것은 원불교 공부에 서 매우 중요하다.

36) [네이버 지식백과] 정기훈련법 [定期訓練法],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37) [네이버 지식백과] 상시훈련법 [常時訓練法],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 1) 정기훈련을 ‘일정한 기간, 일정한 훈련 장소에서 정기훈련 11과목을 단련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① 1년 중 출가 교도는 6박7일, 재가 교도는 1박2일이라는 기간에 정해진 훈련원에서 훈련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정훈련원에 가지 않은 교당 자체 훈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반드시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만 근무로 생각하고 재택근무나 다른 현장의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 2)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볼 때 두 훈련법의 관계는 ①뎐가?  
우리들은 이미 매일 매일 수도인의 일과에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겸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상시훈련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좌선 염불 기도 일기 법회 등 정기훈련의 내용이 이미 들①있다.
  - 3) 훈련법의 정의에서 ‘정(靜)할 때’ ‘동(動)할 때’ 와 같은 용①을 ①뎐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자. ‘일이 있을 때’ 나 ‘일이 없을 때’ 라고 해석해도 현대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 ‘훈련을 난다’ 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①이므로 ‘훈련을 한다’ ‘훈련을 받는다’ 등으로 바꾸면 ①뎐까?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기훈련의 경우 ‘훈련을 받는다’ 는 표현이 더 가깝지만 ‘훈련을 난다’ 에는 자발성과 적극적 참①가 더 많이 포함되①있다고 생각된다.
2. 정기훈련의 기간과 상시훈련 속에서 정기훈련을 보완하기
- “현시대에 맞게 정기훈련 기간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고 본 연구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 1) 법회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훈련 보완이다. 현재 원불교 법회식순은 설교가 중심으로 참석자들은 수동적인 참①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경강, 공부담, 신입교도의 원불교와 인연 맺은 과정 등을 발표한다. 소수만 참①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교도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상호 이해하는 훈련이 된다.  
법회 프로그램 속에 정기훈련 과목을 훈련하는 과정이 포함되도록 개선해나가기를 바란다. 교화훈련부의 개선노력과 함께 이미 각 교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면 좋은 법회 프로그램이 나오리라 기대한다.

- 2) 교당내 훈련을 통한 보완이다. 유성교당에서는 년 1회 교화단 1일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훈련은 1시간 남짓의 교화단회로는 충분하지 못한 단원들끼리의 소통과 정기훈련과목을 직접 진행하며 익히는 좋은 시간이다.

단장들로 구성된 향단훈련을 통해 교화단회를 미리 준비하고 교당의 교화일정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화 조직으로써 교화단을 활성화시키고, 교화단을 통한 훈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단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장이 단원의 일기성적을 매월 조사하<sup>①</sup>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 성적을 향상시키려 했던 초기 교단 교화단 단장의 역할을 복원하면 좋겠다. 이 일은 쉽지 않겠지만 교화단을 통한 상시훈련을 정착시키고, 교화의 활로를 열<sup>①</sup>가기 위한 방안이다.

3. 현재 각 훈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기훈련이 범위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sup>①</sup>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주제는 각 훈련원들의 과제인 동시에 오늘 가장 비중을 두<sup>①</sup>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다.